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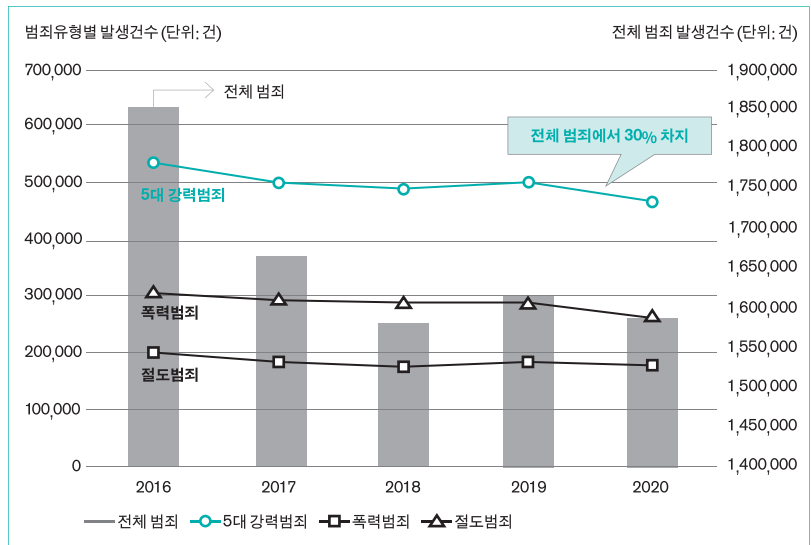
부영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보호사무관

박종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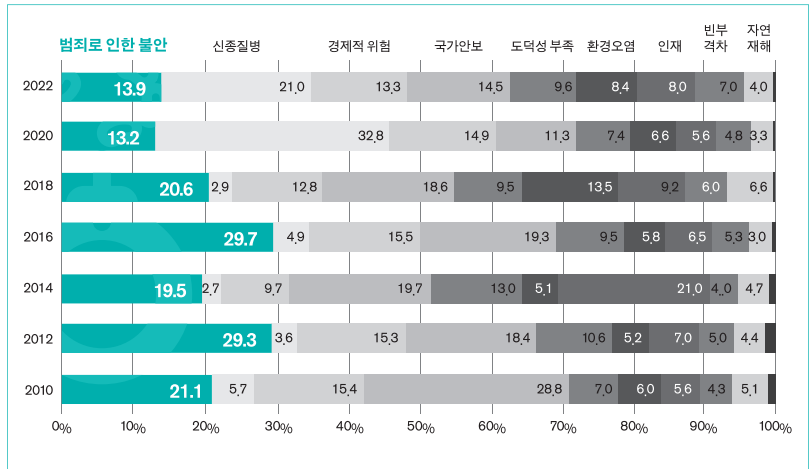
최근 강력범죄 발생이 잇따르면서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5년간(2016~2020) 범죄 발생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여전히 전체 범죄의 약 30%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수치도 지난 10년간 약 25%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국내 범죄 발생건수 연도별 추이



출처: 손동필 외(2022)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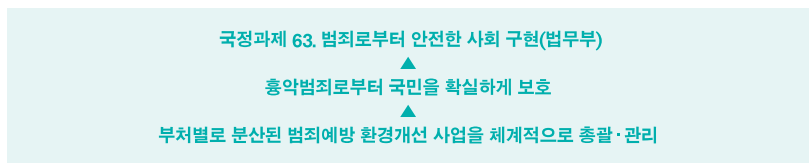


출처: 손동필 외(2022)

이에 따라 범죄로 발생하는 사후적 손실을 줄이고, 범죄 발생요인들을 제거 및 억제하는 사전 예방 패러다임으로서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은 범죄예방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여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CPTED 사업들은 행정·재정적인 문제로 연속성이 떨어지고, 관계기관 간의 소통 부재로 유사 사업이 중복 시행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 시행 중인 CPTED 사업의 조정을 통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 과정

2022년 5월 정부는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법무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출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이에 CPTED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선팀(법무부 보호정책과)을 구성하여 대통령 훈령인 「범죄예방환경개선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였다(2022. 11.). 또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CPTED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학·범죄학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이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시행 중인 CPTED 사업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5개년(2023~2027)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2023.3.).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의 기조에 따라 ‘통합·관리를 통한 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각 관계기관의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8개 부처에서 4대 추진전략과 19개의 세부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4대 추진과제 분야 중 ‘CPTED 사업 관계기관의 협업 강화’에 대한 세부과제가 전체 과제의 약 50%를 차지하여 CPTED 통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다양한 부처 및 지자체에서 CPTED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각 관계기관 간의 협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전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			
정책 목표	CPTED 관련 제도 개선	CPTED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CPTED 인식 제고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TED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협의 추진</li> <li>· CPTED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li> <li>· CPTED 사업 평가 체계 구축</li> <li>· CPTED 사업 포상 제도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li> <li>· 법무부·지자체 CPTED 협업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amp;국토부·해수부, CPTED 맞춤형 컨설팅 확대</li> <li>· 법무부&amp;문체부, 소년 보호시설 공공디자인 컨설팅</li> <li>· 관계기관의 CPTED 관련 사업 지속 추진</li> <li>· CPTED 인증제 활성화</li> <li>· CPTED 적용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교육을 활용한 CPTED 교육 활동 전개</li> <li>· 대학생 참여 CPTED 온라인 홍보 활동 전개</li> <li>· CPTED 담당자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li> </ul>

출처: 법무부(2023)

### 추진전략 1. 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먼저 CPTED 관련 규정 내용의 상당 부분(건축, 개발, 사업 분야 등)이 권장사항에 그친바 범죄예방 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설비·시설물 중심의 규정 내용에 건축물의 공간·형태·구조·입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방법 시설물 설치에 치중하는 지자체 CPTED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후 유지·관리 방안까지 단계별 추진 방향 및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CPTED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가 전무하여 지자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CPTED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정성 지표를 연구 및 개발하여 우수 CPTED 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 등의 포상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추진전략 2. CPTED 사업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

그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CPTED 사업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계부처의 CPTED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이 의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차관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건축학 분야 등 각종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 간의 협의, 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다(「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2조, 제3조). 이에 따라 1차 협의회를 개최(2023. 3.)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2023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였다. 또한 CPTED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지자체와 CPTED 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보 교류 및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등을 위해 법무부와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 추진전략 3. CPTED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CPTED 사업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 및 해양수산부(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즉 국토교통부와 해수부는 개발사업 추진 시 CPTED 적용 필요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법무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컨설팅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CPTED 설계 자료를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낙후된 소년보호시설에 공공디자인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낙후된 시설에 수용된 보호소년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함이다. 아울러 교육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CPTE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PTED 인증제 활성화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사업 추진 ▲CPTED 실효성 제고를 위한 CPO 활동 강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주소정보시설 고도화를 통한 야간 범죄예방 환경 조성 ▲국립부설 학교 안전강화사업 확대 등 다양한 고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전략 4. CPTED 관련 인식 제고

그간 CPTED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범죄’라는 용어 때문에 CPTED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선 법무부의 법교육 기반을 활용한 CPTED 관련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CPTED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활동 중심의 청소년 CPTED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법교육 프로그램에 CPTED 교육과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의 법질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CPTED 온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CPTED 담당자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편 등 교육강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향후 과제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CPTED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들이 제도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폭넓게 발굴하고자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였다. 하지만 CPTED 사업이 제대로 통합·관리되고, 일반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따라서 우선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정책의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 사례를 포상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장의 실질적인 CPTED 사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좌우되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CPTED 사업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CPTED의 성과는 사업지역의 범죄율 감소 및 주민들의 불안감 감소로 나타나는 만큼 성과 도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시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법무부. (2023).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 2 손동필, 성은영, 임보영, 허재석. (2022).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법무부
-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